스마트폰 앱에 광고된 자동차
알고보니 차량 1대에 등록증이 2개

“아車!하면 당한다” 중고차 매매 사기

등록증·배기량 등 속여
서울·수도권서 구입한 차량
소비자 피해 사례 특히 많아
당국 점검 강화 나서야

중고 자동차 구매 시즌인 연말, 중고차 구매 희망자들을 겨냥한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연말에는 신차 연식이 바뀌기 전 타던 자동차를 처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다. 이러한 중고차 구매 희망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점검 강화가 절실하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중고차 매매·검색이 쉬워지면서 사기 피해 가능성도 커졌다.

이희종(30·광주시 북구)씨의 경우 최근 스마트폰으로 중고차 매물을 찾다 80만원에 살 수 있는 2000년식(1800cc) 검정색 스팩트라 윙을 찾아냈다. 주행 거리도 3만6000㎞에 불과했다.

사이트에 적힌 매매 담당자에게 전화로 “주행 거리 맞느냐”고 물었더니, “운전자가 초보였다”면서 인천시 서구청장 직인이 찍힌 자동차 등록증까지 보내 줬다. 신차 연식이 바뀌기 직전, 자동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갖 사이트를 뒤지며 ‘손품’을 판 게 ‘성과’를 거뒀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광고 내용과 자동차 등록증의 배기량 차이를 발견, 차량 번호를 조회해보니 수원시 권선구에 이미 같은 번호로 차량이 등록됐음을 확인했다. 2001년식(1500cc)에 6만7800㎞를 주행한 차량 기록을 위조한 등록증까지 제시하며 중고차 고객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 매매 사이트의 경우 거짓 정보와 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 등이 적지 않다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최근에는 자동차 등록증 세부 내용까지 전문적으로 위조해 허위 판매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 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3분기까지 파악한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중고자동차 소비자 피해건수는 ▲2010년 38건 ▲2011년 54건 ▲2012년 51건▲2013년 30건(9월) 등 173건으로, ‘자동차 성능 기록부 허위 기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차를 구입, 피해를 본 경우가 82건으로, 중고차 고객들이 매물이 많고 값이 싼 수도권을 선호하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등록일이 1주일 차이나는 자동차 등록증. 인천(사진 왼쪽)과 수원시의 직인이 찍혔다. 차량등록번호와 차종은 같지만 사용본거지와 소유자 등이 서로 다르다.

구입 뒤 성능 기록부 조작 여부나 차량 이상 상태를 확인하더라도 매매상이 잠적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106건)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가 중고차 성능기록부 및 차량 상태 전수 조사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뢰성 있는 중고차 매매상들에 대한 선발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

요즘 광주 조폭들 뭐 먹고 사나보니…

좀도둑질에 무전취식
구역도 없고 서로 인사도 안해

“요즘엔 조폭이 조폭이 아니라니까. 구역도 없고, 같은 조직원끼리 인사도 안해.”

“요즘에는 돈 될 것 찾는다며 길가에 세워놓은 중고 자전거까지 들고 가다가 붙잡혀.”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광주 지역 조폭 분위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였다. ‘조직폭력배 분위기 제압을 위한 합동간담회’라는 명칭의 회의에는 광주지역 조폭이라면 알만한 형사 30명이 마주앉았다. 참석자 대다수는 15년 이상 조폭만 전담했던 형사들이다.

최근 경기가 어려운 탓에 돈 될 것을 찾아 나선 조폭들이 노인·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폭력을 저지를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은 최신 조폭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효율적 대응 방안과 향후 활동 및 단속 계획 등에 대한 논의 자리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달라도 확 달라진 조폭 문화가 거론됐다. 25일 광주경찰청이 파악 중인 지역 조직폭력배는 국제 PJ·무등산·신양 OB·충장 OB·콜박스 등 8개 파 321명.

무등극장 주변을 무대로 한 국제 PJ파, 팔레스 호텔을 중심으로 한 신양OB, 런던약국 사거리~제일극장 일대를 주름잡던 무등산파 등 과거 구역(나와바리)는 사라졌다고 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이들 조직은 각자의 구역에서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보호비를 받아 챙겼다. ‘구역조직 생사여탈권’이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성립됐다는 것. 상대 조직이 구역을 침범하게 되면 조직 간 패싸움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일본도에 이름을 새겨놓고 단체 합숙할 때도 이 때다. 이후 구도심이 쇠락하면서 한 때 상무지구 등 신도심으로 옮겼지만 구역을 나누는 행태는 없어졌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구역이 사라지면서 조직 간 알력, 조직 내 기강도 사라져 90도 인사는 커녕, 아예 모른 척 하는가 하면, 돈만 된다는 판단이 서면 상대 조직끼리도 손을 잡는 게 요즘 분위기라고 전했다.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보험사기·윷 도박·보도방 운영에 이어 절도까지 온갖 범죄를 마다하지 않으며 무전취식으로 붙잡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7월 30일 가벼운 질환으로 입원 치료하면서 3억3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가로챈 신양 OB 등 조직원 장모(26)씨 등 13명이 광주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9월 2일엔 주차장에 주차된 영업용 택시에서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난 3월 11일엔 광주천변 밑을 오가며 노인들을 유인해 윷 도박을 연 무등산파 행동대원 박모(45)씨 등 7명이 동부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기생할만한 ‘꺼리’가 없다보니 조폭 체면(?)을 구기는 범죄까지 손을 대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약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방향과 단속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신나는 크리스마스 25일 성탄절 휴일을 맞아 광주시 북구 생룡동 광주 패밀리랜드 눈썰매장을 찾은 가족들이 겨울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서구청 ‘어수룩 행정’

기아차 서비스센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몰라
법적으로 환수 가능한 5년치 1400만원만 받아

광주시 서구가 치밀하지 못한 행정으로 받아야 할 교통유발부담금 수천만원을 못 받게 됐다. 현장 조사만 했더라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구는 25일 기아자동차측에 내방동 ‘기아자동차 광주서비스센터’(바닥면적 5319.57㎡)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1385만원을 부과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의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매년 받아야 하는 것을 최근에야 발견하면서 뒤늦게 부과한 것이다.

기아차는 지난 1980년 해당 부지에 ‘최종점검장’ 용도로 건물 1동(연면적 3400㎡)을 건립한 뒤 1982년부터 기아 차량을 수리, 점검하는 ‘기아자동차 광주서비스센터’를 운영해왔다. 기아차가 해당 건물을 최종 점검장 형태로 운영했다면 공장 부속 건물에 포함돼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서비스센터를 포함한 차량 정비소는 다르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매년 자치단체에 내야 되는 시설물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0년 이후부터 계산하면 대략 6000만원을 서구에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서구는 차량 정비소 운영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 서류상으로만 파악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뒤늦게 확인 절차를 거쳐 부과했지만 이마저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부과권 제한 등의 사유로 전체 금액 중 5년 동안만 부과해야 했다.

서구측은 “건축물 대장만으로는 전시장이나 정비시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사우나 사물함 털고 수면실서 ‘쿨쿨’

쌍나팔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설치된 사물함에서 손님의 금품을 턴 40대 여성이 잠복 중인 여경에 덜미.

○…2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장모(여·49)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A사우나 2층 여성 탈의실에서 도구를 이용해 이모(여·60)씨의 사물함 잠금장치를 부순 뒤 현금 등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

○…경찰은 A사우나 입구 등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통해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여경을 현장에 투입해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장씨를 검거. /박정렬기자 halo@

도대체 스피치 말을 어떻게 잘 할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중·고 · 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쉽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 · 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 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전화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46번길 3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2014년도 제2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4년 2월 17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100명) 오전 9:00~ 1:20
야간반(100명) 오후 6:00~10:20
보 육 교 사 자 격 취 득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3년 12월 2일(월) ~ 2014년 1월 10일(금)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4년 1월 10일(금)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4년 1월 13일(월) 오전 10시
나도 이제 보육교사!
1년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교육비 (1년에 1,705,000원 : 2013년 기준)와 훌륭한 교수진이 준비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지금 노크하십시오.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 3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4주간의 현장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이어야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TEL 062)605-1112, 1023 FAX 062)572-0264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